



IC設計保護條約 年內 체결 美·日 중심 強力推進…國內波 效果 커

世界知的所有權機構(WIPO)는 최근 스위스 제네바에서 關係技術專門家 會議를 開催하고 半導體집적회로(IC) 레이아웃트 디자인(설계) 權利保護를 위한 國際條約을 올해안에 체결키로 했다.

特許廳에 따르면 우리나라를 비롯 美國·日本·西獨·中共 등 10個國이 參加한 이번 會議에서 各國 대표들은 條約締結과 關聯된 각종 기술적인 문제와 用語問題에 대해서도 相互 意見を 交換한 것으로 알려졌다.

世界半導體市場의 80% 이상을 占有하고 있는 美國·日本

에 의해 그동안 強力하게 推進돼온 이 條約이 締結될 경우 새로 開發되는 IC 레이아웃트는 임의로 複製하거나 商品化할 수 없게된다. 특히 商業적으로 利用된 날로부터 2년까지 發明者에게 特許出願權을 附與, 權利를 인정해 주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어 그 波及 效果가 클 것으로 豫상되고 있다.

한편 이러한 움직임과 관련, 國內 半導體 業界도 技術開發에 注力, 外國技術의 模倣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製品開發을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關係者들은 지적하고 있다.

日, 特許法 全面 改正 來年 4月末부터 實施할 豫정

日本 特許廳은 歐美와의 特許 摩擦을 피하기 위하여 特許法을 全面 改正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1發明에 複數特許를 認定하는 多項制 실시

▲外國文獻에 의해 外國이 日本特許의 無効를 提訴하는

期間의 연장

▲外國企業의 翻譯期間을 고려하여 特許公告後의 異議申請 期間 연장등인데 이를 골자로 하는 特許法 全面 改正案을 올해말 通商 國會에 제출, 내년 4月末부터 실시할 豫定으로 있다.

CAS檢索機能

대폭強化

美, 特許明細도 檢索가능

世界 最大化學情報서비스 機關인 美國의 CAS는 온라인 데이터 서비스의 檢索機能을 대폭 強化했다.

CAS는 현재 日本·西獨과의 사이에 科學技術情報의 國際네트워크 「STN 인터네셔널」을 설치·운영하고 있는데 이의 機能을 더욱 活性化하는 한편 機能向上을 위한 方法을 모색키로 했다.

이의 일환으로 CAS는 독자적으로 네트워크 경유 서비스.를 하고있는 CAS 온라인을 強化한다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化學文獻情報화일의 CA화일에 대하여 잠지명, 저자명만을 檢索할 수 밖에 없도록 되어있던 것이 抄錄文중의 단어를 키워드하고 필요한 文獻을 검색, 인출이 可能하게 된다. <☞>

에너지는 국력이다
아껴써서 애국하자.